## R&D팀

# 2021년 10월 MICE 산업 동향

2021. 11.



## 목 차

1.	9th UIA	라운드테이블	아시아태평양 도	쿄	 . 3
2.	해외시장	동향			 13
3	국내시장	동향			 24

## 1. 9<sup>th</sup> UIA 라운드테이블 아시아태평양 도쿄<sup>1)</sup>

## 가. 국제협회연합(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, UIA)

- 국제협회연합(이하 UIA)은 1907년에 각종 학술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정 부, 비영리 조직으로 벨기에 정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임
- 국제 협회 및 단체의 효율적인 업무 촉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 각국 단체들의 국제회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한 통계 결과를 회원 협회 및 단체에 제 공하고 있음
- 이러한 목적으로, 매년 국제 협회 및 단체들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제회의 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발간하며, 전 세계 MICE 도시 및 국가의 순위와 개최실 적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

## 1) 제9회 UIA 라운드테이블 아시아태평양 도쿄

- UIA는 매년 총 2회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회원으로 등록돼있는 국제기관, MICE 주요 도시의 컨벤션뷰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세션별로 다양한 주제 발표와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의 자리를 마련해옴
- 2020년에는 서울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버추얼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 바 있으며, 2021년 라운드테이블 아시아태평양은 도쿄 컨벤션뷰로(Tokyo Convention & Visitors Bureau, TCVB)에서 주최하는 하이브리드 행사로 개최됨
- 해외 참가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했으며, 일본 현지 참가자들은 도쿄 컨벤 션뷰로에서 대면 행사에 참가함

<sup>1)</sup> 본 고는 10월 21일(목)~22일(금)에 하이브리드 행사로 도쿄에서 대면행사와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했던 UIA 라운드테이블 아시아 태평양 도쿄에 참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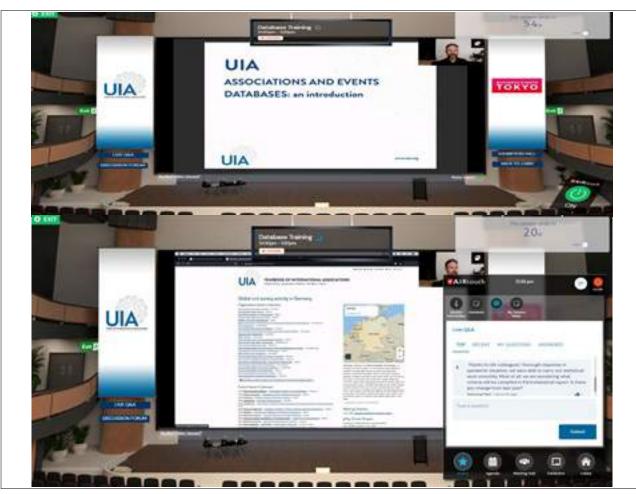
[그림 1] 하이브리드 라운드테이블 메인화면

## 2) 제9회 라운드테이블 아시아태평양 도쿄 주요 결과

### (기) UIA Database Training Session

- UIA는 협회 및 국제기구의 발전과 교류를 위해 1907년 설립된 이래로, UIA에 등록된 회원기관의 타입, 주요 행사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분류했으며,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회의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
- 해당 데이터들은 크게 두가지 분류에 따라 국제기구 연보(The 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)와 연례 국제회의 캘린더 (The International Congress Calendar)로 제공하고 있음
- 국제기구 연보와 연례 국제회의 캘린더에서 세부 검색창(Advanced Search)을 통해 유저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
  - 예를 들어서, 국제기구 연보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, SDGs)의 테마와 국제기구 주제를 선택하면, 옵션에 해당하는 국제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음





[그림 2] 데이터트레이닝세션 화면

. . . . .

#### (LI) UIA Round Table Session

#### ■ UIA DAY 1. 기조연설

- 기조연설은 UIA의 회장직을 맡은 Cyril Ritchie가 'Associations in the World: Speaking Truth to Power' 이란 주제로 발표함
- 국제기관과 협회는 인권, 환경보호, 난민에 대한 원조, 양성평등, 보건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의명분을 증진 시키기 위해 모인 시민 집단으로 사회의 악인 인신매매, 인종차별 등과 같은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섬
- 따라서, 협회는 국내외적인 문제뿐 아니라 국제적인 공공의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며, 의회, 부처, 시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함

#### ■ UIA DAY 1. 발표세션 1

- 첫 번째 발표 세션은 'Strategic Membership Solutions'의 디렉터인 Belinda Moore 가 'Using Your Strategic Plan to Maximize Positive Impact'라는 주제로 발표함
- 기업의 훌륭한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미래와 지향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해야 함
- 뉴노멀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이 전략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간결하고,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, 과정 중심, 맴버들 간의 디스커션등을 키워드로 삼아야 함
- 또한, 전략적인 계획은 해당 분야와 운영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며, 앞으로 뉴노멀 시대에는 창의적이며,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서비스, 커뮤 니티 기능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힘

## ■ UIA DAY 1. 발표세션 2

- Chris Dingcong은 'Building Your Brand Through Your Visual Conversation'이라 는 주제로 발표함
- 기업은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, 효과적

- 인 브랜딩을 위해서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적절한 이름과 로고,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함
- 대표적인 글로벌브랜드인 맥도널드, 스타벅스, 시티은행 등은 로고와 이름을 제 작할 때, 브랜드의 자산을 쉽게 인지할 수 있고,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비주얼을 담는 것에 중점을 뒀음
- 또한, 기업은 지속적으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업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하고, 효과적으로 브랜드의 자산을 강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함

### ■ UIA DAY 1. 발표세션 3

- Toni Brealey는 'Leading the Uncertain Association'을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급부상한 새로운 구조의 리더십에 대해 강연함
- 팬데믹 이후 훌륭한 리더의 자질로 공감 능력, 미래 지향적인 사고, 협동능력 등이 떠오르고 있음
  - 공감 능력은 조직원들과의 개인적 수준의 커넥팅을 의미하고, 경청과 이해하려는 태 도와 오픈마인드가 포함됨
  - 미래 지향성에는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,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를 극복할 줄 아는 태도, 기업의 미션과 목적에 집중하는 태도가 있음
  - 협동능력은 조직원을 위한 내외부적인 기회를 창출할 줄 아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, 다른 기업과의 협동심이 있음

## ■ UIA DAY 2. 발표 세션 1

- iPresence의 CEO인 Chris Christophers는 'How Telepresence Avatar Robots and Digital Twin can enhance everyday communication'이라는 주제로 텔레프레젠스 아바타 로봇이 코로나19 이후 웨딩, 가족 모임 등 사적인 행사부터 박람회, 컨퍼런스 등 다양한 테마의 행사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와 향후 미래 전망에 대해 밝힘
- iPresence는 텔레피 (Telepii)를 통해 원격 조정으로 텔레피를 회전시키며 스마트 폰이나 비디오 채팅을 돕는 보조 디바이스를 개발함
- 텔레피의 메인 컨셉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간의 물리적 거리감을 최소화하고,

화상 시스템을 통해 물리적 거리감과 관계없이 한곳으로 모으고자 하는데 있음

- 아바타 로봇 테크놀로지는 빠르게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으며, 데일리 커뮤니케 이션을 위한 로봇부터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로도 활용할 수 있음
- 이러한 로봇 테크놀로지와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, 가상공간에서 실제공간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로봇을 두 공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매개가 됨
- iPresence의 핵심 기술은 로봇기술이지만 iPresence의 목표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텔레피와 아바타 로봇을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돕는 기술을 갖추는데 있음

## ■ UIA DAY 2. 발표 세션 2

- Julian Moore는 'Sponsorship in Post COVID World How to maximize your revenue'을 주제로 코로나 19로 불확실한 상황이 전례없이 펼쳐지면서 정부에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큰 리스크가 되자, 전통적인 관계가 아닌 스폰서십을 통한 파트너간의 가치 교류가 중요하게 됨
- 기업은 스폰서를 통해 서로 깊이 있게 관여하면서 파트너 간에 분명한 가치를 보여야 함
-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스폰서와 기업 간의 관계는 팬데믹 이전에 없었던 새로 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회를 창출하고, 충분히 관여했다는 감정과 신뢰감을 주는 전략을 통해 기업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

#### (다) 폐회식

#### ■ 패널 디스커션

● Belinda: 어떤 조직이든 조직 구성원 중 누군가 조직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다면, 조직은 긍정적인 변화로 임팩트를 줘야 하며, 조직 구성원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함

-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지 체계적으로 제시해줘야 하며, 효율적인 솔루션을 위해 의사결정자의 빠른 결정이 필요함
- Chris Dingcong: 브랜드의 자산은 간단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, 기업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관의 목표와 방향을 살피고,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가져야 함
- Cyril: 앞으로 각 협회들 간의 파트너십이 기대가 되며,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함
  - 이러한 협회 간의 협력은 시너지를 창출하고, 더 많은 혜택과 기회가 생김
- Julian: 로봇이나 테크놀로지는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게임체인져가 될 수 있을 것이며, 스폰서십은 어떠한 기업이든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하게 하고,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끎
- Chris Christophers: 다양한 행사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로봇 사용은 처음에는 새로운 개념이었으나, 지금은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, 앞으로의 하이브리드 행사가 어떤 형태일지, 미래의 비젼은 무엇일지 기대가 됨



[그림 3] 패널 디스커션

\_ \_ \_

#### ■ 클로징 리마크

- 폐회식 연설에는 Chris Dingcong이 'The role of Branding for Associations' 라는 주제를 발표함
-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 협회와 기관이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방안 으로 브랜드 로고와 디자인을 변경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재활성화 하기도 함
- 새로운 로고를 적절하게 도입을 하면, 사람들이 더 기억하기 쉽고, 협회의 이미 지를 적절하게 담았을 때 연간 수입의 30% 이상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며,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,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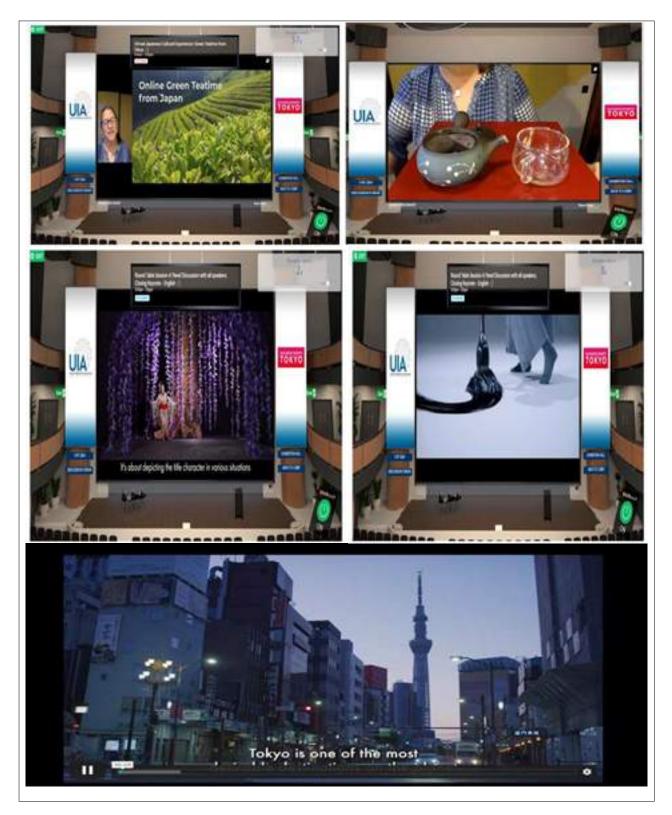
[그림 4] 클로징 리마크

#### (라) 일본 문화체험 및 온라인 전시회

#### ■ 버추얼 일본 문화체험 및 온라인 전시회

- 발표 세션과 패널 디스커션 등의 일정이 끝나고, 온라인 참가자들을 위해 일본 의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인 다양한 녹차의 종류와 효능,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녹차 다도 방법에 대해 설명함
- 또한, 일본 전통춤인 가부키 공연과 서예와 같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통과 현

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본 도시 홍보 영상을 통해 일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줌



[그림 5] 버추얼 일본 문화체험

● 일본은 버추얼 플랫폼을 활용해 도쿄 컨벤션뷰로, DMO 시바 도쿄 베이(DMO

SHIBA Tokyo Bay), 콩그레스(Congres Inc) 온라인 전시회 부스를 마련함

- 온라인 전시회 부스에서는 참여사의 브로셔, 관계자와의 채팅, 라이브 미팅이 가능하며, 홍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음



[그림 6] 온라인 전시회

## 2. 해외시장 동향

## 가. 아시아·태평양 지역

- 싱가포르: 마리나베이 센즈, 뉴 이코노미 포럼 대면행사에 해외 방문객 초청 예정
- 싱가포르관광청(Singapore Tourism Board, STB)은 11월 16일~19일까지 마리나 베이 센즈에서 뉴 이코노미 포럼(New Economy Forum) 개최를 위해 51개국에 서 300명 이상의 국가 대표와 글로벌 CEO로 구성된 방문객을 엄격한 위생 방역 조치 하에 받을 계획임
  - 뉴 이코노미 포럼은 싱가포르의 본격적인 MICE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싱가포르 관광 청의 파일럿 프로그램임
- 입국 시 외국인 대표단은 PCR 테스트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호텔에 서 격리해야 함
- 또한, 포럼 장소 외에 행사 개최 장소와 레스토랑, 회의룸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필수 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함
  - 지정된 장소와 레스토랑 외에는 3인 이상 집합이 금지됨
- 이러한 조치는 싱가포르 내국인 대상 코로나19 조치보다 다소 엄격한 방역 지침임



[그림 7] 뉴 이코노미 포럼 2021

\_ \_ \_

## ■ 싱가포르: 싱가포르 MICE 기업 40여 개, SG SafeEvent 인증 획득

- 올해 6월 싱가포르 컨벤션전시 주최자&공급자 협회가 주도하는 SG SafeEvent 인증을 출시한 이후로 80개 이상의 기업이 인증에 등록했으며, 40개 이상의 기업이 인증을 획득함
- SG SafeEvent 인증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행사를 위한 인증제도로 방문객과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한 행사의 수행, 구성 및 규정 준수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뉴노멀시대의 선도적인 비즈니스 목적지로서 싱가 포르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
- 인증은 싱가포르 표준위원회(Singapore Standards Council, SSC)에서 개발했으며, Enterprise Singapore(ESG)의 감독하에 만들어진 'MICE 및 이벤트 산업을 위한 안전한 이벤트 관리 체크리스트'를 기반으로 함



[그림 8] SG SafeEvent 인증 로고

## ■ 보라카이: 보라카이 MICE얼라이언스 결성으로 MICE 행사 적극 유치 계획 발표

- 보라카이는 비즈니스 행사 개최를 위해 보라카이 MICE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고, 국내 및 해외 휴양 관광객뿐 아니라 기업과 단체 관광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힘
  - 보라카이는 2018년 섬의 재건과 환경보호를 위해 섬을 일시적으로 폐쇄를 했으며, 코로나19로 전체 자연 생태계의 휴식기를 가질 수 있었음
- 보라카이 MICE 얼라이언스의 회장인 클레오페 알비소(Cleofe Albiso)는 보라카이가 비즈니스 이벤트와 다양한 규모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지가 될 것이라 밝힘
- 또한, 알비소는 보라카이의 휴양림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, 얼라이언스를 통해 비즈니스 이벤트 기획자와 주최자를 유치하고, 인센티브 투어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함
  - 보라카이 MICE 얼라이언스는 관광청, 마케팅 부서인 관광 진흥 위원회, 각종 호텔, 여행사, 보라카이 규정 준수 협회 등으로 구성됨
- 보라카이의 가장 큰 컨벤션시설은 파라다이스 가든 컨벤션센터로 총 1,500석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



[그림 9] 보라카이 전경

. . . .

## ■ 말레이시아: 말레이시아컨벤션전시뷰로와 비즈니스 이벤트 사라왁, 비즈니스 협력체계 구축

- 말레이시아 컨벤션전시뷰로(Malaysia Convention & Exhibition Bureau, MyCEB)와 비즈니스 이벤트 사라왁(Business Events Sarawak, BESarawak)은 쿠칭(Kuching)이 하이브리드 시티 얼라이언스(Hybrid City Alliance)의 일원으로 출범하는 것과 연계하여,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즈니스 협력체계를 구축함
- 말레이시아 컨벤션전시뷰로는 최근 여러 도시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국내 및 국 제적 행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하이브리드 시티 얼라이 언스에 가입했으며, 쿠칭은 비즈니스 이벤트 기획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고, 사라왁의 매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
- 말레이시아 컨벤션전시뷰로는 사라왁의 86개 행사를 지원하고, 40,000명 이상의 대표단 유치 및 다양한 미팅 캠페인 개최 등을 통해 약 8,0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



[그림 10] 쿠칭(Kuching) 하이브리드 시티 얼락이언스

## 나. 미주 지역

## ■ 미주: 바이든 정부, 11월 8일부터 국제 여행객 대상 미국 국경 개방

-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8일부터 항공, 육로, 해로로 입국하는 국제여행객들에게 미국 국경을 다시 개방하기로 함
- 새로운 국경 방침에 따르면, 국제선 항공 여행객들은 미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반드시 예방접종 완료 증명과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함
- 육로와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,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
- US 트래블의 대표인 로저 다우(Roger Dow)는 11월 8일부로 레저 여행뿐 아니라 MICE 행사 참여 등으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국제 비즈니스 여행객들의 입국이 가능해지면, 지난해 80%가량 감소했던 비즈니스 여행 지출을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
- 전문컨벤션관리협회 (Professional Convention Management Association, PCMA)의 CEO인 셰리프 카라마트(Sherrif Karamat)는 내년 1월 9일~12일까지 라스베이거 스에서 열리는 세계 리더들을 초대하는 시저스 포럼(Caesars Forum)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힘

. . . .

## ■ 미주: 뉴욕 자비츠센터, MICE업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옥상 야외 농장 조성

- 뉴욕의 자비츠센터 (Javits Center)는 20만 평방 피트의 옥상 야외 테라스에 1에이 커 크기(약 1,224평)의 농장을 만들어 매년 4만 파운드의 농작물을 생산할 것으 로 예상됨
  - 옥상 농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6.75 에이커(약 8,263평)와 다른 컨벤션센터의 지속가 능성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재활용 함량이 높고 로컬소싱이 가능한 건설자재를 사용함
  - 생산되는 농작물은 연회와 만찬에 제공되며, 루프탑에서는 이사회나 25인 식사 등 모임을 할 수 있는 온실이 있음
- 또한, 자비츠센터는 120만 평방 피트의 이벤트 공간과 새로운 전시공간 등 루프 탑을 확장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공간을 마련함
  - 유리 전시관은 연중 최대 1,500명의 투숙객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, 야외 테라스에는 과수원, 그늘 정원 등이 있음
- 자비츠센터의 CEO인 앨런 스틸 (Alan Steel)은 옥상을 통해 볼 수 있는 스카이뷰
  와 독특한 지붕과 테이블 공간은 직원들과 이웃들에게 센터의 지속가능성과 삶
  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힘
  - 자비츠센터의 이러한 친환경적인 옥상 프로젝트는 미국 그린빌딩협의회로부터 LEED 골드 인증을 받음



[그림 11] 자비츠센터 옥상 약외 농장

#### 다. 구미주 지역

## ■ 영국: 코번트리 시의회 및 워릭셔 상공회의소, 지역관광 상품 관리 및 방문지 명성을 위한 DMO 출범

- 코번트리(Coventry) 시의회와 코번트리&워릭셔 상공회의소가 협업한 '데스티네이션 코번트리(Destination Coventry)'가 2021년 영국의 새로운 지역관광 추진조직(DMO)으로 관광상품을 관리하고 방문지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함
- '데스티네이션 코번트리'는 현재 진행 중인 영국 문화도시 행사 프로그램뿐 아니라, 코번트리 빌딩 소사이어티 아레나(Coventry Building Society Arena, CBS Arena)에서 내년에 4년마다 개최되는 영연방 국가의 종합 경기대회인 '코먼웰스게임(Commonwealth Games)'을 유치하려고 함
- CBS 아레나는 총 35,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룸과 전시장을 갖고 있으며,
  2019년 코번트리는 약 천만 명의 방문객과 5억 9400만 파운드(한화로 약 9,558 억 2,322만 원)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
- 컨퍼런스 코번트리워릭셔(Conference Coventry and Warwickshire)의 디렉터인 폴 존스(Paul Jones)는 지역의 위치가 여러 MICE 행사에 참여하는 대표단과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, 활기찬 도시와 시골의 모습 등 다양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고 밝힘



[그림 12] 코번트리 아레나 전경

. . .

## ■ 영국: 스트레스 메터스, MICE업계 종사자 대상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

- 스트레스 메터스(Stress Matters)는 하트퍼드셔 대학교와 월터스 리서치 앤 컨설팅 연구진들과 협력하여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(World Mental Health Day)을 기념하기 위해 MICE 업계 종사자들의 웰빙과 정신건강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함
  - 본 연구는 2021년 봄과 여름에 온라인 설문조사와 개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행됨
-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81%가 지난 12개월 동안 퇴사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고 밝혔으며, 약 13%는 스트레스, 우울증, 불안감 등으로 일을 쉰 적이 있다고 밝힘
- 2019년 응답자의 13%만 회사가 종시원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관심을 보인다고 응답했으나, 2021년에는 79.5%가 회사가 종사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 와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함
- 81%의 응답자는 새로운 근무지를 택할 때, 사내 복지제도에 대한 회사와 경영 진의 태도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고 밝힘
- 스트레스 메터스의 대표인 로라 카펠-아브라(Laura Capell-Abra)는 MICE 업계 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종사자 개개인이 자신의 웰빙에 더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과 근무지를 선택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함
- 또한, 로라는 회사 경영진들은 직원들의 웰빙과 정신건강을 고려하는 다양한 제도를 강구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시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힘



[그림 13] '세계 정신건강의 날' 심볼

## ■ 스페인: 스페인관광청, 사우디아라비아 여행객 대상 무역 로드쇼 개최 계획 발표

- 스페인관광청은 10월 25일~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포스트팬대믹 무역 로드쇼를 개최할 계획임
  - 25일에는 제다 힐튼 호텔에서 행사가 진행되며, 26일에는 하야트 리젠시 리야드 올라 야(Hyatt Regency Riyadh Olaya)에서 열림
- 스페인관광청은 올해 초 해당 지역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 왕국을 타겟으로 홍보활동을 확대해 왔으며, 영국 내 보건 규정이 요구하는 총 참석인원인 50명이 넘지 않도록 사우디 관광과 MICE 전문가, 호스피탈리티, 항공업계 주요 인사와 스페인 여행지, DMC, 호텔 대표가 한자리에 모일 예정임
- 스페인관광청은 해당 로드쇼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외여행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여행 전문가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등 고도의 타겟 마케팅 및 홍보활동 을 전개하고 있으며, 다양한 스페인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음



[그림 14] 스페인 전경

. . . . .

#### 라. 오세아니아 지역

## ■ 호주: 빅토리아 주정부는 코로나 방역 단계를 완화하여 11월 5일부터 맬버른 컨벤션센터 공식 재개장 예정

- 맬버른 컨벤션센터 (Melbourne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, MCEC)는 11월 5일 공식 재개장을 할 예정이며, 빅토리아 주정부의 코로나 방역 'C 단계 (Phase C)' 진입을 발표에 따라 행사 개최 시 실내 행사는 1,000명까지 수용이 가능(최대 수용 인원의 75%)하게 되며, 스탠딩이 가능한 행사는 최대 5,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함
- 실내 행사에 참여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하고, 야외 행사는 최대 5,000명 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, 실내 행사와 야외 행사에 상관없이 참가자들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입장이 가능함
- 멜버른 컨벤션센터의 CEO인 피터 킹(Peter King)은 멜버른 컨벤션센터는 빅토리아주의 MICE 산업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대표 컨벤션센터로 모든 규모의이벤트를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코로나19 안전 가이드라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함
- 빅토리아주는 11월 25일 이후 거주민의 90%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90% 달성 이후 'D 단계(Phase D)'로 전환하여 참석자와 거리 별 인구 밀도 제한 없이 행사 개최를 허용할 예정임



[그림 15] 맬버른 컨벤션센터 전경

## ■ 독일: 독일과 싱가포르간의 백신 트레블 레인 운영으로 싱가포르 기업의 독일 여행 예약 2배 급증

- 독일과 싱가포르 간의 백신 트레블 레인(vaccinated travel lane, VTL)운영이 시작되면서 싱가포르의 유럽 비즈니스 목적지로 독일이 급부상하자 지난 9월 싱가포르기업의 독일 여행 예약이 2배로 급증함
- 독일 입국이 용이해지며 접근성이 높아지자, 싱가포르 비즈니스 여행객들은 유럽과 미국의 비즈니스 컨퍼런스 중간지점으로 독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- 현재 독일은 비위험 지역(non-high-risk and virus mutant)으로 12세 이상 여행자가 예방접종 확인서 또는 코로나19 음성 테스트 결과 증명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, 캐나다, 한국, 대만, 이랍에미리트, 유럽 거주자는 제한 없이 여행이 허용되고 있음
- 싱가포르 소재 여행 전문업체인 FCM은 백신 트레블 레인 목적지에 대한 기업과 여행 자의 여행 의향이 높으며 레인을 이용하는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인다고 밝힘



[그림 16] 독일·싱가포르 백신 트레블 레인(VTL)

. . . . .

## 3. 국내시장 동향

## ■ 서울: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2022년 착공 목표로 총 사업비 2조원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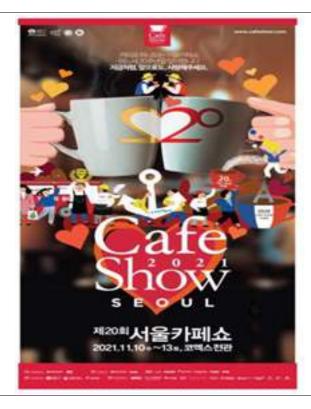
- 서울역 인근에 새로운 강북 최대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'서울역 북부역세권 개 발사업'이 추진되며, 2022년 착공을 목표로, 총 사업비 2조 원이 들 예정임
- 해당 개발사업에 포함되어있는 컨벤션시설은 연 면적 2만 4,403m² 이상 규모로 2,000명 이상이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등 국제회의시설 수준으로 조성되고, 호텔, 판매 및 업무 시설도 연 면적 50% 이상이 들어섬
- 설계에는 서울역 광장, 서울로 7017과 해당 시업지를 연결하는 공중보행통로를 설치할 예정이며, 건물 내부에는 3층 레벨에서 벨리(Valley) 컨셉의 몰을 만들어 주변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한 상업환경을 제공할 예정임
- 황규헌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대표는 건물 전체의 랜드마크화를 위해 현재 호텔, 상업시설, 오피스텔, 오피스에 맞는 상품을 기획 중이며, 국가 중앙역인 서울역의 첫 번째 북부역세권 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



[그림 17] 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 조감도

## ■ 서울: 코엑스, 11월 10일~13일 제 20회 서울 카페쇼 개최

- 11월 10일~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최초의 커피 박람회인 서울 카페쇼가 20주년 국제 행시를 개최할 예정으로, 30개국 625개 업체의 3,000여 개 브랜드 가 참가를 확정함
- 제 20회 서울 카페쇼에서는 20주년 기념관을 비롯해 2022년 커피업계의 새로운 트랜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'체리스 초이스'와 '서울 커피페스티벌'이 진행되고, 2020년 코로나로 취소되었던 '월드 커피배틀' 경연대회도 진행할 예정임
- 서울 카페쇼의 커피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호주는 월드라떼아트 챔피인 케일럽 차(Caleb Cha)가 라떼 아트 시연 및 강연 등을 진행할 예정임
- 그 외에 코로나 이후 침체된 커피 업계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10회 월드커피 리더스 포럼에서 '위기를 기회로: 포스트 코로나 시대 커피 시장'을 주 제로 국내외 연사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됨



[그림 18] 제20회 서울카페쇼 포스터

. . . . .

## ■ 경기도: 고양시 킨텍스,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검토

- 킨텍스가 특급호텔과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, 이를 위해 환승센터나 공항도심터미널, 공공디지털 도서관과 같은 지원시설과 쇼핑몰 등 상업시설을 개발해 전시회나 회의 참가자들이 숙박을 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 개발을 검토하고 있음
- 실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를 여가시설로 오픈해 국제적인 MICE 도시로 발전했으며, 싱가포르 역시 MICE 산업 육성을 위해 전시컨벤션 시설과 카지노를 필두로 한 호텔, 쇼핑몰, 공연장 등을 융합한 통합형 리조트를 개발해 큰성공을 거뒀음
- 킨텍스는 최근 제3전시장을 건립하여, 총 17만8566㎡의 전시면적을 보유하게 될 킨텍스는 세계 20위권 전시컨벤션이자, 아시아 MICE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리조트 관련 법안 통과로 약 760만명의 관광객 이탈과 2조76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
  - 일본은 지난 2010년 싱가포르가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 개발을 통해 관광객 2배, GDP 1.5%의 증가 효과를 가져온 점을 벤치마킹해 지난 2018년 통합형 리조트 관련 법안을 마련했으며, 오는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함
- 그러나, 국내 규정에는 카지노를 사행산업으로 분류하며, 사행산업의 순매출을 국내총생산(GDP) 대비 0.54%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'사행산업총량제' 규제하기 때문에, 킨텍스의 카지노 최종 유치 확정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
- 이화영 킨텍스 대표는 전시장 부지 내 대형호텔과 함께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면 경기도와 고양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킨텍스 주변 각종 개발사업과 함께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,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

## ■ 경상남도: 대구, 10월 20일부터 대구 MICE 지원센터 본격 운영 돌입

- 대구지역 MICE 기업을 위한 '대구 MICE 지원센터'가 대구컨벤션뷰로 내에 미련 되었으며, 10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감
- 대구 MICE지원센터는 온라인 '스튜디오 D', 교육과 간담회를 위한 '비즈니스 라 운지', 전문 컨설팅을 위한 'MICE 상담실' 등으로 구성됨
- 스튜디오 D에서는 지역 MICE와 ICT 기업이 그간 축적한 디지털 국제회의 개최 노하우와 미팅 테크놀로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비즈니스 라운지는 MICE기업의 직급과 업종에 맞춘 교육을 진행함
- MICE 상담실은 기업들의 경영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, 새로운 시업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사, 노무, 법률, 회계, 세무 및 각종 시업 분야 11명의 전문 컨설턴트 를 확보하며, 향후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컨설턴트로 인력풀을 확대할 계획임



[그림 19] 대구 MICE지원센터 '스튜디오 D'

- - - - -

## ■ 경상남도: 부산, 2020년에 이어 '2021 부산 MICE 로드쇼' 성공리에 개최

-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10월 7일~8일간 전국 MICE 관계자 들을 부산으로 초청하여 '2021 부산 MICE 로드쇼'를 개최함
  - 부산 MICE 로드쇼는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2013년부터 잠재 MICE 행사 수요가 있는 행시를 발굴해 부산으로 유치하는 역할을 해왔으며, 지난해 코로나로 해외 로드쇼 개최가 어려워지자 지역 MICE 업계를 위한 행사로 대체하여 행사를 개최함
  - MICE 행사 유치 권한을 가진 각종 학회 교수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간접마케팅을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총 45건의 행사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둠
- 10월 7일~8일에 개최되었던 로드쇼에서도 작년과 유사하게 부산의 MICE 시장을 홍보하기 위해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인 벡스코, 롯데 시그니엘, 뮤지엄다, 부산엑스더스카이 등에 대한 홍보와 비즈니스(Business)와 레저(Leisure)가 가능한 '국내 유일의 블레저(Bleisure; 비즈니스와 레저가 결합한 도시를 나타나는 신조어) 도시'라는 점을 강조함
- 또한, 부산관광공사는 7일 주요 관계자 대상 유치설명회에서 국제회의시설 벡스 코를 비롯하여 많은 호텔, 관광지, 문화시설이 집적되어있는 해당 지역 일대가 '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'라는 공식적인 구역으로 확정한 후 부산의 마이스 인 프라와 콘텐츠가 확대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림
- 코로나 상황에 맞는 온라인 회의와 소형 하이브리드 행사(온·오프라인 병행)가 가능하도록 부산 마이스 화상 상담장과 스튜디오를 조성한 점 등을 강조하며 부 산이 '안전하고 매력적인 마이스 도시' 임을 홍보함



[그림 20] 2021 부산 MICE 로드쇼

## ■ 제주도: 제주컨벤션뷰로, 한국 MICE세미나에 한국 대표 MICE 도시로 참가

- 제주컨벤션뷰로가 10월 21일에 한국 관광공사 시드니 지사가 주최하는 한국 MICE세미나에 한국 대표 MICE 도시로 참가함
- 행시는 온라인 생중계 설명회 형태로 국내에서는 제주와 부산이 한국의 대표 MICE 도시로 참여하며, 호주와 뉴질랜드 MICE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국과 지역 MICE 개최 여건, 도시 매력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임
- 제주컨벤션뷰로는 제주 방문 경험이 없는 호주와 뉴질랜드 MICE 바이어들의 흥미를 더하기 위해 감귤모자와 제주 환경보호 티셔츠를 입고 프리젠테이션에 나섬
- 또한, '제주유니크베뉴', '제주MICE 관광상품' 등 독특한 제주의 MICE 콘텐츠들을 돌하르방, 해녀, 설문대 등 다양한 요소와 엮어 소개할 계획이며, 설명회가 종료된 후에는 참가한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K-food 체험 밀키트 배송 등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예정임
  - 행사 종료 후에는 누구나 제주컨벤션뷰로 SNS 채널을 통해 발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음



[그림 21] 제주컨벤션뷰로 프레젠테이션 현장

---